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할렐루야, 2023년 새해에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며, 안부의 인사와 함께 멕시코 선교지 소식을 드립니다.

1. 멕시코 티후아나 선교지 소식들.

- 12월 중순부터 매주마다 쏟아진 겨울비로 건너편의 민둥산이 희뿌연 황토색을 감추고 푸른 초록의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막기후의 민둥산을 초록의 향연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사역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 1월 21일(토) “영적 리더십 과 교회”의 주제로 “2023년 목회 세미나”가 벨엔선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싸늘한 아침 한기를 뚫고 배움의 열정을 안고 한 걸음에 달려온 목회자들과 리더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한 강의는 멕시코 교회의 사정을 미리 알고 계신 듯, 참석자들의 자기 발견과 결단, 그리고 헌신으로 이어지며 교회사역과 리더십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한해도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목회세미나 사역”을 위해 강사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선한목자 국제신학교 소식 (Seminario Intenacional el Buen Pastor)

목회자 양성과 훈련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티후아나 선한목자 국제신학교는 3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 야간반”과 사모들을 위한 “어린이 사역자반” 그리고 “토요 신학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학기 강의가 2월 6일(월) 개강을 합니다.

- ☑ 각 학급별로 25명의 수강생들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매월 100불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동역의 손길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3. 계속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 **멕시코 종교청에 신청중인 “개신교단 창립 신청서”의 허락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펜데믹의 영향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청중인 교단창립 서류가 통과되어 교단의 보호가 필요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월달에는 “선한목자 국제신학교 건축이 시작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허가절차와 건축에 필요한 재정, 그리고 진행과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토요일 일일 단기선교팀 사역을 통해 “리더쉽 훈련과 사역을 지원하는” 기회가 되도록.**  
 펜데믹의 영향으로 멕시코 교회들도 많은 리더들을 잃어버려서 사역의 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일일선교팀의 “영적인 사역과 현지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에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정기영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추위로 인한 얼굴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귀에는 이명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79:13]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임 마 누 엘**”

멕시코 티후아나 시에서 박영완, 정기영 선교사 드림.  
*Timoteo YW PARK*